


 사회복지법인내원
부산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san Seogu Health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49252) 부산 서구 구덕로 127 6층 (서구가족센터)
 대표전화 051-241-6200 | FAX 051-241-4200

가족 모라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공간,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들의 바람이 깃들어 있는 공간”


 사회복지법인내원
부산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san Seogu Health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Greeting

안녕하십니까.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윤경 센터장입니다.

세대와 문화를 공유하며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첫발을 내딛은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지난 시간 코로나-19라는 반갑지 않은 동반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호흡할 수 없는 낯선 세상에서도 변화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며 한걸음 한걸음씩 오늘을 채워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났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 따뜻했고,

마스크 너머 보이는 숨겨진 미소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시간을 여기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됨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 정채봉 작 『첫마음』 중 일부

가슴뛰고, 떨리던 첫마음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롭게 깊어지고 넓어지겠습니다.

격려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함 속에서 존중받는 더 나은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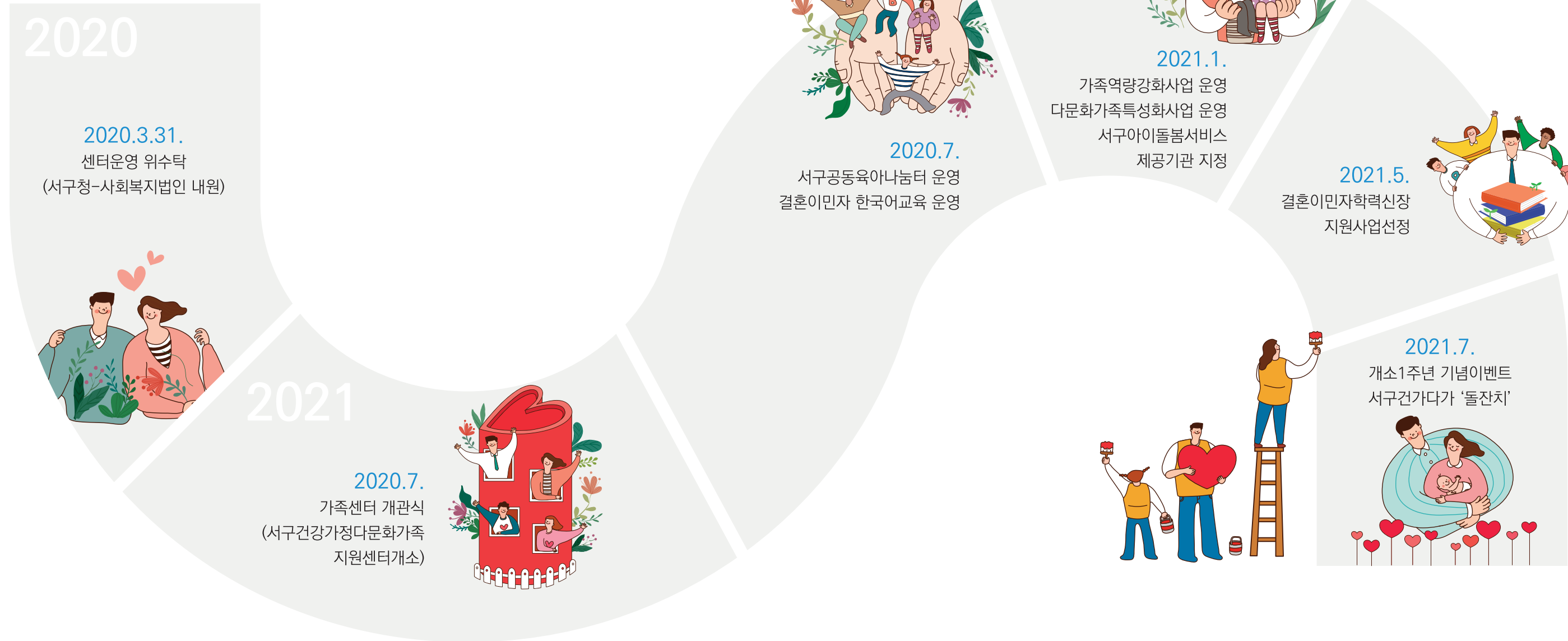
2022년 1월

센터장 변윤경



부산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일년

우리센터는 여러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돌봄,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기능 향상을 돕고, 세대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이야기 (Before → After)



사무실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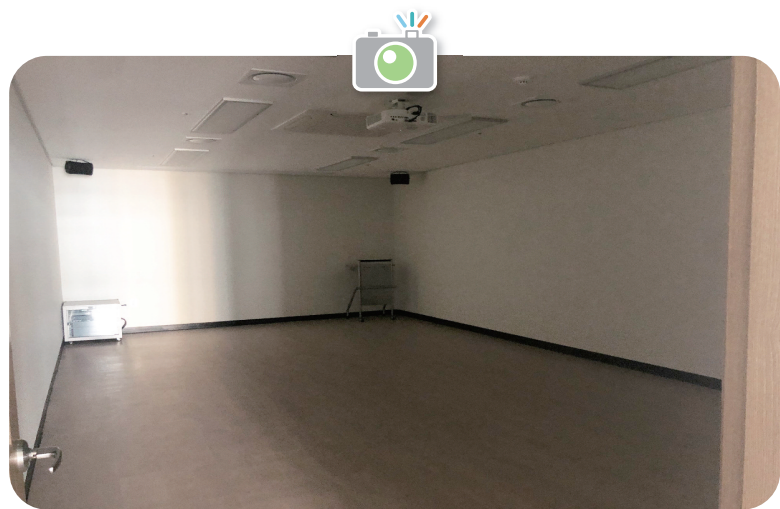
사무실 after



동아리활동실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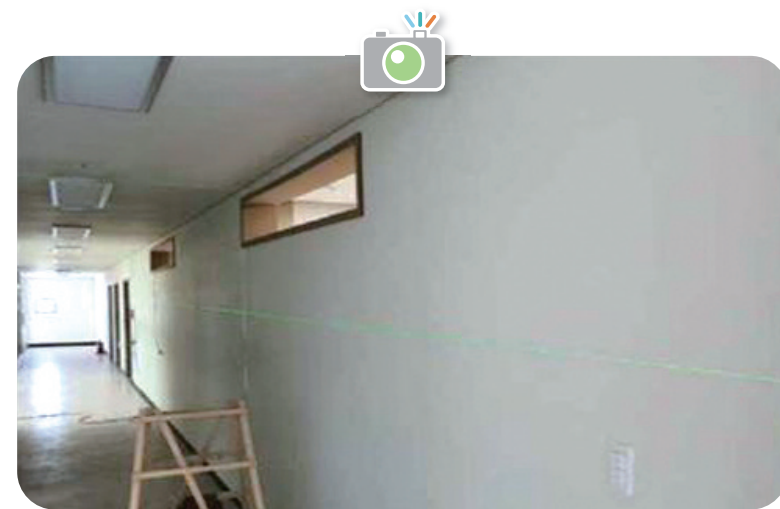
동아리활동실 after



프로그램실 before



프로그램실 after



복도 before



복도 after

‘좋은 부모, 부부로 성장하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부모교육-유아기)

자녀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애착, 발달단계 이해, 성격유형이해, 초등학교 입학전 필수사항 등을 배웠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부모교육-아버지)

아빠와 함께하는 돌봄교실
아빠랑 쿠키도 만들고 운동도 같이 했어요.
아빠와도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자녀)

서구의 아빠단
연령에 맞는 아빠-자녀 관계를 알 수 있었고,
올바른 훈육법을 배울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아빠)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부모교육-예비신혼기)

새로운 관계를 맞이한 우리는 서로간의 의사소통방식, 갈등관리, 역할, 경제에 관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부모교육-노년기)

서로의 관계회복을 위해 애정표현능력을 높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와 건강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부모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

함께하는 푸드테라피

가족이 함께 모여 이쁘게 만두를 빚어 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미래설계 프로그램

나의 꿈 찾기

친구와 함께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배우고 3D펜으로
안경을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다양한 색상의 안경 참 멋지죠?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사회성이 쑥쑥!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Zoom으로 친구들을 만났지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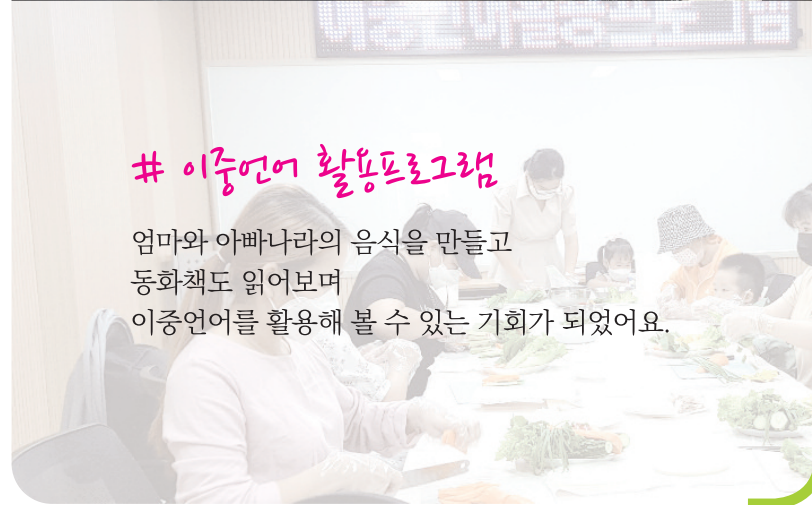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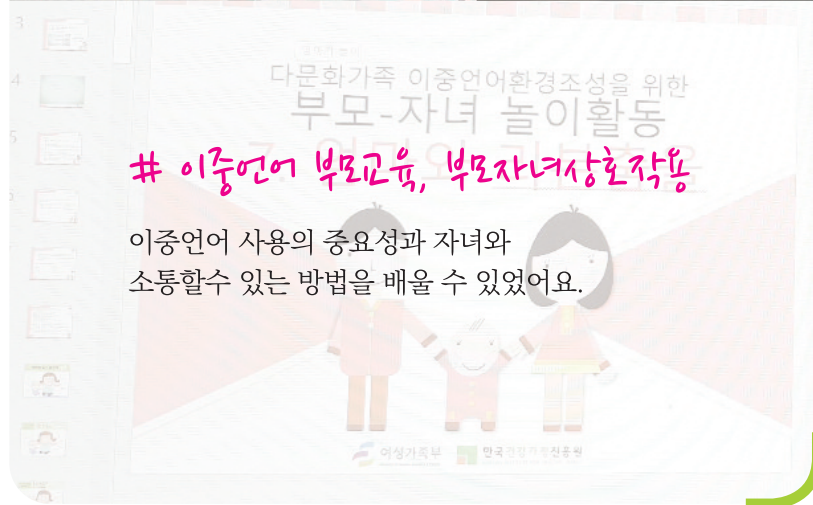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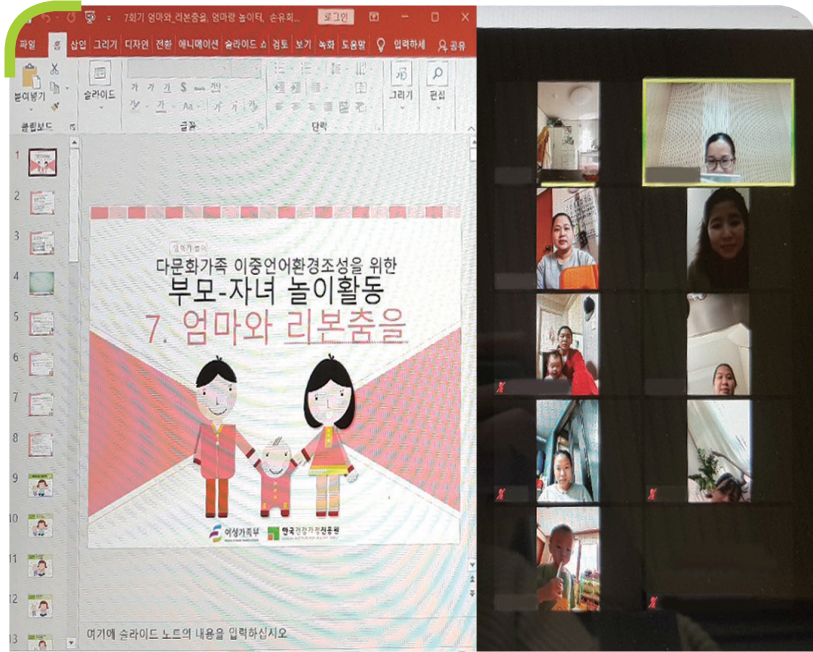


다재다능 평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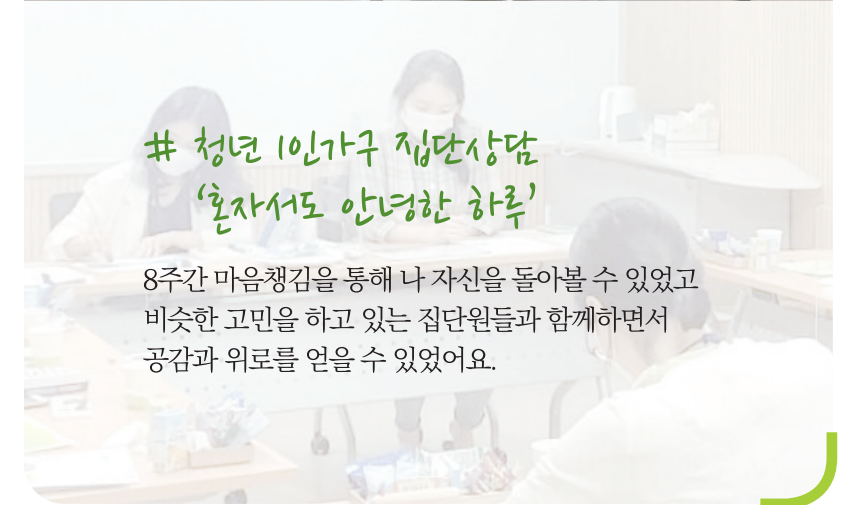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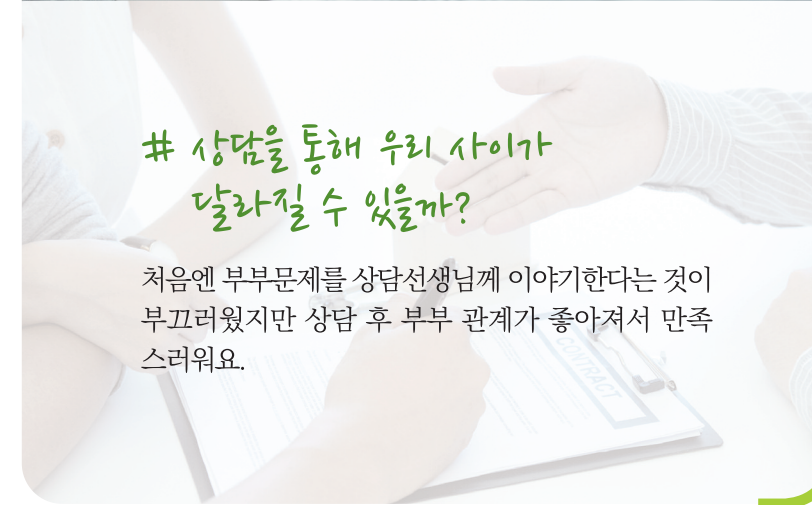
우리가족 지문도장 꾸욱!

가족마다 개성있는 멋진 지문트리를 완성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언어두개 기쁨두배’



‘다독다독’ 마음 위로



‘통번역사의 하루’



결혼이민자 병원내원시 동행동역

병원에 혼자 가거나 아기랑 가야 되는데 남편의 직장생활이 바빠서 같이 못갈때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너무 걱정이 컸어요. 통번역지원사가 동행해주어 잘 이해할 수 있고 너무 든든합니다.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시 동행동역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문화와 말을 잘 몰라요.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해도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통번역지원사가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선생님, 그 아동의 이야기’



방문교육지도사의 하루

아동과 같이 공부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항상 해맑게 잘 따라주는 아동을 보면 더 힘이 납니다.



방문교육선생님이 좋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공부하는 날이에요. 공부도 하고 색칠도 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너무 재미있어요.

나누어 더 따뜻한 '대단한 가족봉사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해서 더 의미있어요.



| 4월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 |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키트 제작하고 이웃주민에게 나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7월 건강한 여름보내기 |

무더위로 힘든 여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삼계죽을 만들어 나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 9월 대단한 우리 송편 |

추석이 속해 있는 9월 다문화가족과 함께 송편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문화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070 1인가구 화훼동아리'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내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만남

지루하고 따분했던 나의 삶,
화훼동아리를 만난 이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꽃밭이 된 우리집,
나의 뜰도 설렘으로 가득해졌습니다.



| 꽃마음 |

동아리 회원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다양한 화훼작품을 만들며 공유하는 우리.
"행복합니다"

| 꽃배움 |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즐겁습니다"

| 꽃나눔 |

배움으로 얻어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우리.
"보람칩니다"

우리동네

우리지역
문화체험

한국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 및
가족구성원들의
한국적응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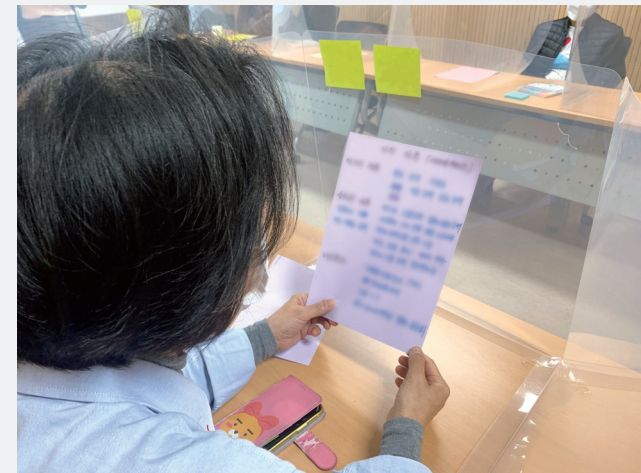
| 음식문화체험 |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은?!
어묵이지요~!”



| 전통문화체험 |

“한복도 입어보GO,
전통놀이도 해보GO, 떡도 만들어보GO”



| 미래설계 |

임신,육아,한국어 교육 등으로 찾지 못했던
'나'를 찾고 '비전'도 세워볼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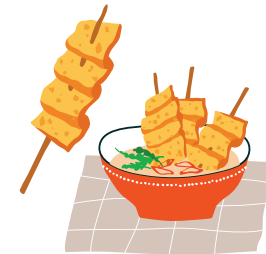
| 길찾기 |

제 '비전'은 한국에서 직업가지기예요.
퍼스널 컬러도 찾아보고 면접연습도 해보며
제 꿈과 한발짝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향한 프로젝트

미래설계
길찾기

한국거주 3년 이상
결혼이민자들의
초기정착 이후의 삶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명절문화체험 |

“처음 맛아본 추석, 처음 만들어본 송편”



| 지역문화체험 |

“우리지역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감천문화마을 탐방!”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자!’

다이음 강사가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시설, 모임에 직접 찾아가 지역 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종적 차이와 무관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실현 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이음 강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교육참여후기>

“아이들에게 생소했던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교육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르다/틀리다의 개념을 교육해주셔서 좋았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엄마의 멋진 도전

결혼이주민들이 함께
검정고시시험을 준비해요.
조금 어렵지만,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직접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열정가득 한국어교실

생일 축하합니다 ♥

친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는 한국어
교육 수강생들 모습이네요. 국적, 나이
불문 축하해주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한국어교육 평가회

2020년 한해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을
잘 마무리하고자 평가회를 진행했어요.
하고싶은말을 직접 작성해오신 수강생
덕분에 뜻깊은 평가회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업 참여

한국어교육 초급반 수업 모습입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초롱
초롱 수업에 집중하는 수강생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제1회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한국어말하기대회

한글날을 맞이하여 열린 제1회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한국어말하기대회에서 우리 센터 대표로 참가한 미라씨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수업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이제는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하루빨리 얼굴 마주 보고 공부하고 싶어요.

2021년
평가회



한국어교육 평가회

2020년에 이어 2021년 한해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수강생을 격려하고 감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
하기 위해 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픽들기반
온라인수업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행복도! 즐거움도! 2배!

이웃들과 함께 자녀돌봄 품앗이를 시작했어요.
함께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공동육아나눔터에 놀러 왔어요.
코로나19로 다른 가족들과 못 보는 건 아쉽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 발달 함께해요

가족과 함께 미술놀이를 하러 왔어요.
미술도! 친구들도! 모두 모두 즐거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즐거운 활동을 할지 기대되요!



함께 만들어가요

공동육아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치료 프로그램 '안단테'



우리의 첫만남!

악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예요.



파라슈트!!

파라슈트 속에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되어 쏙 들어가요.
가족이 가까워지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 너무 좋아요.



짜잔~ 서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구 아이돌보미 첫 번째 모임

서구 아이돌보미 첫 모임,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규 아이돌보미 모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마을버스 홍보 <많.관.부>

서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마을버스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서구 내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구건가다가 돌잔치

세대와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센터와 '공유'해주신 소중한 시간,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돌 덕담으로

우리센터는 더욱 건강히

성장합니다



untact, tact, untact+tact

전부 다~ 되는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



한국생활 10년차 00님의 첫 나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00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 금쪽같은 자녀 셋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처음 와서 방 두 칸 짜리 집에 일곱 식구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이 출산 후에는 양육에 집중하느라 남편만 돈을 벌었고, 아이 셋을 키우느라 집 근처 외에는 다녀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생활했네요. 그러던 중 올해 초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남편의 수입이 줄어 자주 술을 마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결정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던 수입도 줄고, 의지하던 시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남편도 없고 저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첫째아이는 자폐로 치루센터를 다녀 관심이 필요하고, 아직 어린 다른 자녀들도 신경 쓰느라 제 몸이 쉴 때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집 근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나게 되었어요.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만나서 상담을 한 후에 지리더 선생님과 둘째, 셋째 자녀를 위한 키움보듬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방문해주셨어요. 시부모님 부양과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워야 했던 저에게 지리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산의 관광지를 함께 다니고, 상담을 받으면서 저만을 위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집에서 세 자녀를 홀로 돌볼 때, 키움보듬이 선생님이 한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훨씬 수월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얻은 응원의 힘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이용자 레00리



신입 사회복지사, 첫 사례대상 00님을 만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복지사가 된 3월의 어느 날, 첫 사례대상인 00님과 첫 만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꽃무늬 두건을 쓴 00님은 서툴지만 맑은 목소리로 우리의 첫 만남을 반겨 주었습니다. 입사 한 달차인 저는 상담을 해 본적이 거의 없었지만 00님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00님은 10년 전 높은 산과 넓은 평원이 있는 몽골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출산과 육아에 바빠 여전히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조금은 서툰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연년생인 자녀들은 어쩔 때는 예쁘지만 어쩔 때는 너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고, 한국말이 서툴러 고생한 적도 있고,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어 집이 무척이나 습다는 일상들을 해맑게 이야기하는 00님을 보며, '타지에서 적응해서 사느라 힘들겠다.'라는 '다름'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민족이지만 똑같은 고민들을 안고 살구나.'라는 '같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00님과 첫 만남 이후 사례계획을 세우고 지난 8개월여간 00님과 함께 가정의 고민을 하나 둘 해결해 나갔습니다. 00님의 두 자녀에게는 방문교육선생님이 파견되어 아이들과 학습을 함께할 수 있었고, 00님은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둘째가 아팠을 때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을 알려주는 등 가정의 양육지원과 동시에 00님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후원처의 도움으로 오래된 주택도 따뜻하고 깨끗하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00님은 자녀들이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오면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은 한국생활도 조금 익숙할 때가 있지만 일을 할 때쯤이면 '어느정도 적응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적인 이야기에 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00님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만큼, 신입사회복지사인 저도 만나는 가정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다문화가족사례관리팀원 김 유 나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시간은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우리센터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 직원일동 -



가족뜨락 Vol.01

| 센터이용안내 |

- ▶ 이용시간 월-금 9:00~18:00
- ▶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시간 월~토 9:00~18:00
- ▶ 이용문의

전화	051-241-6200
공동육아나눔터	051-257-0064
아이돌봄	051-241-6252
팩스	051-241-4200
홈페이지	busanseogu.familynet.or.kr
이메일	bsfc0428@naver.com
SNS	instagram/bsfc0428/ band.us.band/80557709

- 발행일 : 2022년 1월
- 발행처 :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편집인 : 지호준
- 주 소 : (49252) 부산 서구 구덕로 127 6층 (서구가족센터)
- T E L : 241-6200 FAX 241-4200
- 본 간행물의 저작권은 부산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습니다.
- 본 간행물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사용하려면 서면으로 허락받아야 합니다.
- 본 간행물은 비매품입니다.